

올림픽공원 활성화 방안 제안서

-올림픽공원 속 한성백제의 재발견-

제출일: 2024 년 4 월 25 일

목차

I. 서론

1. 제안 이유
2. 올림픽공원의 특징
 - (1) 역사적 의미
 - (2) 문화적 의미
3. 구현된 스토리텔링 상황

II. 본론 - 활성화 방안

1. 신규 시설
 - (1) 칠지도 벤치
 - (2) 수막새 보행 블록
 - (3) 몽촌해자 뱃놀이
2. 의복 대여 서비스
3. “모두의 몽촌토성” 어플리케이션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서론

1. 제안 이유

올림픽공원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 여가·휴식 공간이며, 삼국시대 백제의 첫 도읍지인 한성 지역에 자리한 몽촌토성의 유적지이다. ‘올림픽공원역’의 맞은편에 위치한 ‘한성백제역’과 ‘몽촌토성역’만 보아도 올림픽공원 일대가 지니는 역사적 의의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올림픽공원에서 한성대 백제의 자취를 느끼기란 몹시 어렵다. 한성백제박물관은 올림픽공원 내 주 산책로에서 매우 떨어져 있다. 산책로에 인접해있는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은 일일 이용객수 제한이 있고 주말에는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어린이와 동반자만 출입할 수 있다. 해자(垓子)에 둘러싸인 몽촌토성의 성벽 위를 따라 낸 산책로에는 그 흔한 표지판 하나 찾아보기 힘들다. 해맞이명소라는 망월봉 역시 네이버지도 내에만 표기되어 있다. ‘칠지도 스탬프 찍는 곳’의 잉크는 메마른지 오래였고, 간이문의 경첩은 고장 나있었다.

이렇듯, 우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올림픽 공원은 ‘몽촌토성 터’라는 공간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다른 시설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시기획 장소에 가지 않아도, 기존의 산책로 및 자연경관을 따라 거닐며 한성백제의 향취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끔 역사·문화 공간으로서의 복합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2. 올림픽공원의 특징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공원은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이다. 서울특별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소유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체육산업개발이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본래 1988 년 서울 올림픽에 사용할 경기장을 갖춘 대규모 경기장 단지로 조성되었고, 현재는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올림픽공원은 전국에서 울산대공원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공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공원들과는 차별화된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역사적 의미

올림픽공원의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역사 체험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점이다. 올림픽공원은 본래 백제의 옛 수도인 위례성의 일부, 몽촌토성이 있는 곳으로 아직도 그 유적이 남아 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올림픽공원 내에는 한성백제박물관과 백제어린이박물관이 건립되어 있으며, 방문객들은 두 박물관에서 백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공원 내부에 설치된 몽촌토성 산책로를 통해 옛 토성 위를 거닐며,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우리 역사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여타 돌성과 달리, 몽촌토성은 흙으로 쌓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세월이 지남에도 흙이 쓸려나지 않고 토성의 모양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 다른 종류의 흙을 층층이 쌓아올리는 판축공법과 흙 사이에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다져 넣는 부엽공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¹ 또한 주변 성내천 물길을 활용해 만든 해자와 성 바깥의 목책 등 외적의 침입을 막는 데에 효과적인 방어시설은 몽촌토성의 짙은 군사적 성격을 부각시켜준다. 이러한 토성 유적의 특성은 한성백제 시기의 기술력과 전술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1981 년 88 서울올림픽 개최가 확정되면서, 1984 년 4 월 올림픽 경기장 건설을 골자로 올림픽공원 조성에 착공하게 되었다. 공사 도중 올림픽공원 부지에서 백제 초기의 토성인 몽촌토성이 발굴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고,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몽촌토성과

¹ 국립문화재연구소. *文化財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55, No.4, 2022, 38~53.

올림픽공원이 한 위치에 공존하는 형식으로 최종 설립되었다. 발굴과정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군대 막사로 추정되는 주거지와 철제 도구, 뼈 갑옷 등으로, 몽촌토성이 방어용 토성이었음을 추측하게 해준다. 출토유물로는 2 기의 합구식 옹관을 비롯하여 복원가능한 원통형토기, 적갈색연질토기, 회백색연질토기, 갈색 회유전문도기편, 토제어망추, 철기유물 등 500 여 점이 있다. 그중 문살무늬·승문을 새긴 두드림무늬토기는 백제 건국 초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원통형토기는 일본으로 전파된 기대토용의 원형으로 보여 고고학적 의의가 크다. 구릉과 구릉 사이의 저지대에서는 5m 두께의 흙을 차례로 쌓아 만든 판축·움집·지하저장혈의 흔적 등 당대 한성백제인들의 생활상을 직·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유물 및 유구가 다수 발견되었다.

(2) 문화적 의미

올림픽공원은 1988 년도 올림픽 개최지로서 랜드마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한 장소인 만큼, 올림픽공원은 시민들의 일상 속 체육 활동을 북돋우기 위한 공간으로 채워져 있다. 산책로를 따라 공원 곳곳에 농구코트, 테니스코트, 배드민턴 코트 등 다양한 간이 체육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어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는 생활체육을 즐기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러 규모의 경기장은 종류 및 장르를 불문하고 공연장 혹은 행사장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첫 개시 이후로 제 10 회 아시안게임의 개·폐회식, 제 24 회 서울올림픽 개·폐회식 및 각종 경기, 국내외 유명가수의 공연, 국제 마라톤 대회, 뮤직 페스티벌 및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해왔다. 210 여 개의 조각미술품들이 산책로를 따라 설치되어 있어 세계 5 대 조각공원 중 하나로 평가되며, 공원 내부에 있는 소마미술관에서는 상시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올림픽공원은 문화 예술 및 생활 체육을 위한 공간인 동시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산책로와 호수, 생태 공원 등의 자연적인 요소들도 찾아볼 수 있는 곳이다. 올림픽공원의 9 개

랜드마크를 통틀어 ‘올림픽공원 9 경’이라 부르는데, 그중 하나인 ‘나홀로나무’는 널따란 잔디밭 안에 홀로 솟아 있는 나무를 칭하는 것으로 올림픽공원의 대표적인 생태 풍경이다.

3. 구현된 스토리텔링 상황

매주 주말에 열리는 각종 공연 행사를 찾은 관객, 외국인 관광객, 가족 단위 소풍객, 가벼운 운동을 하러 나온 시민 등 일평균 14,000 명이 올림픽공원을 이용한다. 이들에게 올림픽공원은 어떤 공간일까?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성공적인” 88 서울올림픽의 “영광”을 이어 ‘올림픽레거시’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왔다. 올림픽레거시란 “올림픽 개최를 통해 사람, 도시, 국가에 남겨진 유형·무형의 장기적인 혜택”을 의미한다. 유형 레거시로는 KSPO(국민체육진흥공단), 올림픽공원, 6 개의 올림픽 경기장 등이 있고, 무형 레거시로는 지구촌 평화, 국민 자긍심,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상승, 생활체육 활성화 등이 있다.²

6 개의 올림픽경기장과 생활체육시설, 여러 조형물들은 자연스럽게 ‘88 서울올림픽의 계승’이라는 스토리텔링을 구현한다. 이용객은 올림픽으로 구체화된 눈부신 경제성장의 결과물을 누리는 동시에, 문화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영광을 이끌어갈 주인공이 된다. 과연 88 서울올림픽이 모든 이들에게 영광이였는가의 문제는 논외로 두더라도, ‘88 서울올림픽의 계승’이라는 스토리텔링은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동시에 올림픽공원은 ‘한성백제의 복원’이라는 스토리텔링을 결합하려 애를 쓰고있다. 6 개의 경기장은 몽촌토성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고, 2012년에는 야심차게 한성백제박물관을 개관하였다. 매년 9 월말~10 월초에는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하여 많은 관심을 이끌고 있다.

²“서울올림픽레거시”. 국민체육진흥공단 웹사이트, <https://www.kspo.or.kr/kspo/main/contents.do?menuNo=200421>. 2024년 4월 17일 접속.

현장 스토리텔링 조사 분석 4 조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구현된 백제 관련 스토리텔링 방식은 비교적 미흡한 상황이다. 박물관이나 단발성 축제를 넘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 활성화 방안

1. 신규 시설

(1) 칠지도 벤치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치킨인가.” 천만영화 극한직업의 대사이다. 이 대사의 원조는 1600 년 전으로 올라간다. “선세이래 미유차도(先世以來 未有此刀). 지금까지 이런 칼은 없었다.” 칠지도의 뒷면에 적힌 문장이다. 칠지도는 전성기를 구가하던 한성백제 시기 백제인의 문화적 자부심이 드러나는 유물이다.

칠지도가 한성백제를 대표하는 유물인 만큼, 올림픽공원은 칠지도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백제 스토리텔링을 구현하고 있다. 먼저, 칠지도를 그린 계단이 몽촌토성 산책로로 이어진다³.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서울몽촌토성 칠지도 도장’을 볼 수 있다⁴. 우리가 주목한 것은 한성백제박물관 앞에 있는 칠지도 벤치⁵이다.



각주 3. 칠지도 계단



각주 4. 칠지도 도장



각주 5. 칠지도 벤치

³ 머거주기. “몽촌토성에서”. 네이버 블로그, 2018. 5. 31., <https://blog.naver.com/sonjison/221288848100>. 2024 년 4 월 17 일 접속.

⁴ 직접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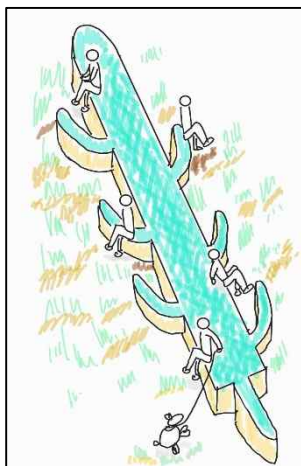
⁵ 다르다. “서울 한성백제박물관 특별관 전시 보고 공원 나들이 추천”. 네이버 블로그, 2022. 8. 22., <https://blog.naver.com/train95/222854931722>. 2024 년 4 월 17 일 접속.

칠지도 벤치는 앉는 사람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직관적으로 이미지를 제시할 수 있어 스토리텔링에 효과적이다. 다만 벤치의 위치⁶를 고려했을 때, 앉아서 쉰다는 본래의 기능은 축소되고 인증샷 장소로서의 기능만 남게 되었다.



각주 6. 칠지도 벤치의 위치

따라서 본래 기능에 충실한 칠지도 벤치⁷를 몽촌토성 성터의 잔디밭⁸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한성백제박물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칠지도 벤치를 접하고, 이곳이 백제의 옛 성터였음을 느낄 수 있다.



각주 7. 칠지도 벤치 제안안



각주 8. 잔디밭의 전경

⁶ 아이리스. “한성백제 문화 유산 칠지도 조형물, 서울 송파구”. *티스토리 블로그*, 2021. 7. 10., <https://perfume700.tistory.com/4465>. 2024년 4월 17일 접속.

⁷ 직접 그림.

⁸ 직접 촬영.

(2) 수막새 보행 블록

올림픽공원의 곳곳에는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두 도로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자전거와 보행자가 혼재되어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여러 차례 목격할 수 있었다.⁹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한성백제의 문화를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았다.

수막새는 목조건축 지붕의 기왓골 끝에 사용되었던 기와이다. 삼국의 수막새는 연꽃무늬와 도깨비 얼굴(귀면;鬼面) 무늬를 다수 제작하였다. 백제의 수막새 중에는 ‘卍’ 자나 무늬 없는 수막새도 있다.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수막새의 무늬는 아래 그림¹⁰과 같다.



각주 9. 자전거와 보행자가 혼재된 모습



각주 10. 몽촌토성 출토 수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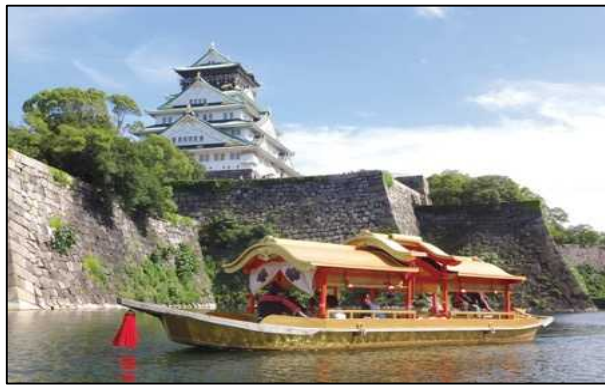
자전거도로와 인도의 경계에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수막새 디자인의 보행 블록을 배치할 시, 자전거 도로와 인도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을 뿐더러 이용객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곳이 백제의 옛 도읍지임을 상기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⁹ 직접 촬영.

¹⁰ 정치영. “수막새가 있는 풍경, 백제 한성(漢城)” *문화재청 새소식 보도/설명*. 2010. 8. 9. http://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653854§ionId=co_sec_1&pageIndex=2&strWhere=&strValue=&mn=NS_01_02. 2024년 4월 17일 접속.

(3) 몽촌해자 뱃놀이

몽촌토성 주변에는 물이 모여 있는 호수가 넓게 펼쳐져 있다. 한강의 지류인 성내천을 활용해 해자를 만들어 생긴 것이다. 해자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의 주변에 둘러서 판 못이다. 몽촌토성의 해자는 상당히 큰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행사나 관광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해자에 백제 시대 사용했던 전통 배를 띄워 뱃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함을 제안한다.



각주 11. 고자부네 사진

위 그림¹¹은 오사카성 해자에 띄워져 있는 ‘고자부네’라는 배이다. 오사카성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호오마루’선을 참고로 재현한 배를 오사카성 해자에 띄워, 관광객들이 뱃놀이를 즐길 수 있는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주 12. 한성백제박물관의 ‘단범 당도리선(單帆 唐道里船)’

¹¹ 오사카 고자부네 놀잇배. 오사카 주유패스, <https://www.osp.osaka-info.jp/kr/facility/detail?id=30>, 2023 년 4 월 18 일 접속.

한성백제가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동북아시아의 바닷길을 장악하여 한반도와 중국, 왜 사이의 무역을 위한 통로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한성백제 바닷길을 책임졌던 백제의 배를 백제방 또는 백제선이라고 한다. 위 사진은¹² 한성백제박물관에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는 백제선인 ‘단범 당도리선’이다. 이처럼 백제 전통 배의 모양을 재현해 몽촌해자 뱃놀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백제의 문화에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의복 대여 서비스

두번째 방안은 백제 시대 의복 대여 서비스의 도입이다.



각주 13. 서울 경복궁, 도쿄 센소지 사원, 호이안 구시가지¹³

대한민국 서울 경복궁, 일본 도쿄 센소지 사원, 베트남 호이안 구시가지와 같은 유명 관광지의 여러 공통점 중 하나는 해당 지역의 전통의상을 팔거나 대여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각

¹² 조수봉. “역사 공부에 한정관 입장권까지! 일석이조 박물관 나들이”. *내 손안에 서울*, 2023. 2. 13.,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6937>. 2024 년 4 월 17 일 접속.

¹³ 최정민, “[세계속한류] “코로나 종식된다면?” 미국인이 한서 가장 하고싶은 것 9 가지”, *한류타임즈*. 2021.12.02.

<https://www.hanryu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6>. 2024 년 4 월 22 일 접속.

phattana stock, “일본 도쿄에 있는 센소지 사원 사이에서 기모노 전통 기모노를 입은 게이샤가 2 명이다”. *shutterstock*, 2017.06.28. <https://www.shutterstock.com/ko/image-photo/two-geishas-wearing-traditional-japanese-kimono-667925704>, 2024 년 4 월 22 일 접속.

Sea Trek VietNam. “호이안 아오자이 사진 투어”. *Get your guide*. <https://www.getyourguide.com/ko-kr/hoian-l831/hoian-aojai-sajin-tueo-t196370/>. 2024 년 4 월 22 일 접속.

장소에서 관광객들은 전통의상을 입을으로써 해당 장소의 스토리와 분위기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으며 더 풍부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의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는 다른 이들도 그들로 인해서 감상에 빠질 수 있게 된다. 즉, 엄청난 사업을 할 필요없이 단순 의복 대여 사업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 스토리텔링이 부여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아래 사진¹⁴은 송파구에서 매년 주최하는 한성백제문화제이다. 본 행사에서는 고증으로 재현한 백제 의복을 착용한 채로 축제가 진행된다. 이러한 시각적 체험을 통해 사람들은 그 공간에 어떤 스토리와 문화가 얽여 있는지 실감할 수 있게 된다.



각주 14. 한성백제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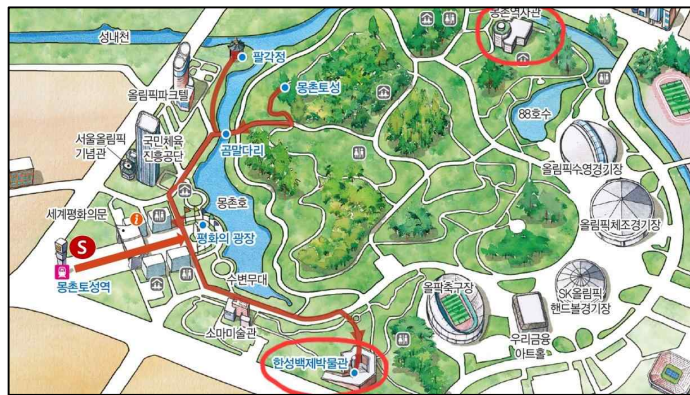
이처럼 전통 의상을 통해 해당 공간에 고유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몽촌토성에서도 의복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올림픽공원은 경복궁, 센소지, 호이안 구시가지와 같이 고유 문화와 스토리를 전달하는 지역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¹⁴ 이동영, "백제시대 옷 입고 백제마을 구경하세요". *동아일보*, 2010.09.14.
<https://www.donga.com/news/List/Enterhttps/article/all/20100913/31173749/1?comm>. 2024 년 4 월 22 일 접속.

의복 대여 서비스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복을 대여해주는 상점이나 시설의 위치이다. 해당 장소가 몽촌토성에서 먼 곳에 위치한다면 접근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존재하게 된다. 경복궁, 센소지, 호이안 구시가지와 같은 관광지에서는 각 장소 근처나 내부 상점가에서 옷의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의상 대여 후에는 반납이 필수적이고, 이로 인한 새로운 동선이 짜이기 마련이다. 접근성과 동선 측면에서 고민해 본 결과, 몽촌토성 산책로를 고려하여 어린이백제박물관(구 몽촌역사관)과 한성백제박물관 두 곳에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각주 15. 몽촌토성 지도¹⁵

지도를 보면, 두 곳에서 의복 대여가 이루어졌을 때 반납을 위해 자연스럽게 몽촌토성의 산책로를 걷게 되는 동선이 만들어질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박물관 내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한성백제의 역사와 유물들을 접하는 기회도 늘어날 것이며, 이는 이용객들이 몽촌토성에 대한 각자의 스토리와 생각에 빠지는 효과를 불러온다. 더불어 해당 서비스 근무자들이 백제 의복을 입고 일을 한다면, 해당 공간에 백제의 분위기를 더욱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¹⁵ "몽촌토성", 서울 공식 관광정보 웹사이트. 2018.07.01. <https://korean.visitseoul.net/walking-tour/%EB%AA%BD%EC%B4%8C%ED%86%A0%EC%84%B1-kr/14457>. 2024년 4월 22일 접속.

다음으로는 대여할 수 있는 옷의 종류이다.



각주 16. 백제 전통 의상¹⁶

반찬이 다양할수록 밥상이 즐거워지듯이, 의복 종류의 다양화는 문화체험에 더욱 많은 즐거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단순 왕, 귀족, 평민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다양한 직업에 맞는 의복들도 구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덧붙여, 백제 귀고리와 같은 악세서리도 대여가 가능하다면 개개인의 기호에 맞는 착장을 고르는 재미가 더해질 것이고, 이는 몽촌토성에서의 감상과 스토리를 더욱 다양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단순 의복 대여만으로는 기대효과가 낮을 수 있다. 그러나 본론 2-1 에서 제시한 방안인 백제 관련 시설과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다면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경복궁을 배경으로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유행하듯이, 백제 관련 시설을 배경으로 한 사진 촬영이나 체험활동은 참여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더욱 백제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특정한 역할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공원 내에는 나홀로 나무와 같이 인스타그램러블한 스팟들이 존재한다. 백제 의상과 이러한 사진 스팟 및 시설들은 서로를 보완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

¹⁶ “한성백제-생활상”, 한성백제문화재 웹사이트. <https://www.songpa.go.kr/hanseong/contents.do?key=3535&>. 2024 년 4 월 22 일 접속.



각주 17. 나홀로 나무¹⁷

마지막으로, 공원 내에서 진행되는 백제 관련 이벤트나 프로그램에 의상을 입고 참여하면 현장에 더욱 성공적인 스토리텔링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는 뒤이어 제시할 어플리케이션 해결방안과 결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모두의 몽촌토성” 어플리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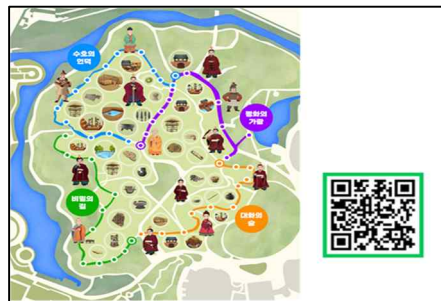
한성백제박물관 소속 몽촌역사관은 서울시 올림픽공원 내부에 위치한 몽촌토성의 유적 정보를 증강현실 기술로 제공하는 몽촌토성 관람 안내 스마트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앱은 코로나 19 이후 단체 유적탐방 학습을 대체하기 위해 시작된 비대면 콘텐츠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몽촌토성 영역과 백제의 문화를 관광할 수 있다. “모두의 몽촌토성” 앱을 통해 사용자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재를 사진으로 감상하고, 실제 몽촌토성 터와 유물이 출토된 현장에서 증강현실로 구현된 문화재를 체험하고 관련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특히 ‘개로왕의 밀지: 첩자의 흔적’이라는 이야기형 미션 게임을 통해 사용자는 더 재미있게 백제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¹⁷ 직접 촬영.

그러나 올림픽공원 및 한성백제박물관을 사전 답사한 결과, “모두의 몽촌토성” 앱을 홍보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앱을 활용해 몽촌토성 영역을 탐방하는 사용자도 찾아볼 수 없었을 만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앱 관련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으므로, 현 실태를 한성백제박물관 공식 홈페이지에 알리고 개선 방안을 찾을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 따라 제안하는 “모두의 몽촌토성”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보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림픽공원 이용객들에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흥미를 끌 수 있는 배너와 안내 표지판을 공원 내부에 설치한다. 특히 지도를 찾는 다수의 방문객들을 위해 백제 유물과 터가 표시된 안내판을 올림픽공원역 4번 출구, 한성백제박물관 앞, 몽촌토성역 1번 출구, 백제 집자리 전시관, 몽촌역사관에 설치한다. 신규 설치되는 안내 표지판에는 “모두의 몽촌토성” 앱 설치 및 어플리케이션 내 페이지로 이동시켜주는 QR 코드를 포함시킨다. 현재 어플리케이션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을 동반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용자를 확장하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주 18. '모두의 몽촌토성' 어플리케이션 내 백제 유물 지도 및 다운로드 링크 QR 코드¹⁸

둘째는 증강현실 접목을 통한 기능 개선이다. 어플리케이션의 주 프로그램은 관련 장소에 도착했을 때 낱말 맞추기, 다른 그림 찾기 등의 미니게임을 제공하고, 이를 완수했을 때 역사에 대한 정보와 유물 카드를 저장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게임을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실제 유물이나 영역을 관찰하지 않게 하고 핸드폰 화면에만 집중하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¹⁸ '개로왕의 밀지 첩자의 흔적' 전체 코스 지도. 한성백제박물관.

증강현실(AR)을 적극 활용하여 실제 카메라로 비춘 화면에 가상의 옛 건물의 모습과 실제 사람들의 생활 모습들을 캐릭터화하여 보여주는 방안으로 기능을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¹⁹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옛 지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파주시 혜음원지

셋째는 신규 미션의 지정이다. 올림픽공원 내부에 존재하는 스탬프 투어와 몽촌투어 앱을 결부시켜, 핵심 유적지를 방문하여 장소를 인증하고 관련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을 어플리케이션 내 미션으로 지정한다. 각 장소마다 온라인 스탬프를 만들어 어플리케이션으로 저장할 수 있게 하고, 해당 미션을 모두 완수하면 완수 인증 배지와 함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제공하는 백제 전통 의복을 입고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현재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모두의 몽촌토성” 어플리케이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¹⁹ AR 로 복원된 파주 혜음원지 행궁터. 파주시청.

III. 결론

서론에서는 서울의 대표 시민공원인 올림픽공원의 역사·문화적 특징을 살펴보고, 현재 구현된 스토리텔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올림픽공원은 몽촌토성이라는 매우 가치있는 유적을 품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주목해 본론에서는 ‘한성백제 복원’이라는 스토리텔링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시설물 설치, 신규 사업 추진, 기존 서비스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먼저 칠지도 벤치와 수막새 보행 블록을 설치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백제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만든다. 특히 올림픽공원 내 해자에 백제선을 띄우는 ‘몽촌해자 뱃놀이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백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뱃놀이를 위해 올림픽공원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들을 끌 수 있을 것이다.

백제 전통 의복 대여 서비스는 기존의 한복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전통 의상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몽촌토성 영역의 고유한 분위기와 올림픽공원 내 사진 스팟이 합쳐져 SNS 인증샷에 의한 홍보라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대여와 반납 과정에서 몽촌토성 산책로를 따라 걸을 수 있는 동선을 제공하여, 한성백제박물관까지의 유동인구를 더 많이 유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모두의 몽촌토성” 어플리케이션은 온·오프라인 홍보가 부족하고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완하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발전된 증강현실을 접목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성백제 역사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도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 특히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새로운 역사 지식 배움의 장을 형성한다면 올림픽공원에 더 많은 이용객을 끌어들이 수 있을 것이다.

현장 답사를 통해 올림픽공원이 일반 도시공원을 넘어 역사 체험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제안서가 채택되어 올림픽공원의 스토리텔링이 보다 발전적으로

현장 스토리텔링 조사 분석 4 조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풍부한 문화 경험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대중 인식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IV. 참고문헌

1. 연구논문

국립문화재연구소. *文化財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55, No.4, 2022, 38~53.

2. 인터넷 자료

“몽촌토성”, *서울 공식 관광정보 웹사이트*.

“서울올림픽레거시”. *국민체육진흥공단 웹사이트*.

“오사카 고자부네 놀잇배”. *오사카 주유패스 웹사이트*

“한성백제-생활상”, *한성백제문화제 웹사이트*

다르다. “서울 한성백제박물관 특별관 전시 보고 공원 나들이 추천”. *네이버 블로그*, 2022. 8. 22.

머거주기. “몽촌토성에서”. *네이버 블로그*, 2018. 5. 31.

아이리스. “한성백제 문화 유산 칠지도 조형물, 서울 송파구”. *티스토리 블로그*, 2021. 7. 10.

이동영. “백제시대 옷 입고 백제마을 구경하세요”. *동아일보*, 2010.09.14.

정치영. “수막새가 있는 풍경, 백제 한성(漢城)” *문화재청 새소식 보도/설명*. 2010. 8. 9.

조수봉. “역사 공부에 한정판 입장권까지! 일석이조 박물관 나들이”. *내 손안에 서울*, 2023. 2. 13.

최정민. “[세계속한류] ‘코로나 종식된다면?’ 미국인이 韓서 가장 하고싶은 것 9 가지”, *한류타임스*. 2021.12.02.

phattana stock, “일본 도쿄에 있는 센소지 사원 사이에서 기모노 전통 기모노를 입은 게이샤가 2 명이다”.
shutterstock, 2017.06.28.

Sea Trek VietNam. “호이안 아오자이 사진 투어”. *Get your guide*.